

# Newsletter

July 25, 2025

## Contents

### Audit

- 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발표
- 중대한 회계위반 적발기능 강화, 주요지적사례 공개
-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 Accounting

- XBRL 재무제표 주당이익, 투자부동산 주석 작성 가이드(보완) 배포
- 2025년 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Tax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Insight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2,3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한국경제 성장을 0.8% 전망



## 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회사,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2026년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사전 공표하였습니다.

### ■ 중점점검 회계이슈

-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예고하였으며, '26년 중 각 회계 이슈별 심사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중점점검 회계이슈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최근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오류에 대하여 심사하여,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므로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

#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고자 종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25. 2. 18)하고,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종점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 재무사항 점검 결과

-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 기재 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

## ■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 ①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②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③ 단일판매, 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 다수 확인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24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 하도록 지도하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충실히 정보제공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

# 증대한 회계위반 적발기능 강화, 주요지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 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 ■ 증대한 회계위반 적발기능 강화

-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 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석을 신속하게 적발
-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고발, 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 시행

## ■ 회계실무 활용 목적으로 주요 심사, 감리 지적사례 공개

-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심사, 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지적사례 14건(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을 공개함

[더 알아보기 →](#)

##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기업공시 개선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7.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

[더 알아보기 →](#)

## Accounting

### XBRL 재무제표 주당이익, 투자부동산 주석 작성 가이드(보완) 배포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정확한 XBRL 재무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가이드」를 2025년 1월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XBRL 주석 공시 점검 결과 오류 사항이 다수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주당이익에 관한 XBRL 작성 가이드」와 「투자부동산에 관한 XBRL 작성 가이드」를 추가로 마련·배포하였습니다.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 2025년 6월 질의회신 요약 등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일관되고 원활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질의회신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 1건, K-ifrs 신속 질의회신 8건,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질의회신 7건)

### ■ 일반기업회계기준 정규 질의회신(1건)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회계처리

### ■ K-ifrs 신속 질의회신(8건)

- 전환사채에 부여된 매도청구권의 유동성 분류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차입금
- 계약영업부문과 중단영업부문의 내부거래 채권·채무 제거 여부
- 현금흐름표에서 사업결합 시 용역수수료의 분류
- 정부보조금 수령 시 원가기준 투입법의 진행률 산정
-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주식선택권의 표시
-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기업이 인수하지 않은 전환사채 전환권의 표시
-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변경하는 경우, 발행자의 회계처리

### ■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속질의회신(7건)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 여부 변경 시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
- 중소기업 특례 지분법 면제 규정의 투자자산별 적용 가능 여부
- 중소기업 특례 규정의 문단별 적용 중단
- 중소기업 특례 재적용 시, 과거 미적용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 중소기업이 된 회계연도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 할부매출에 대응되는 원가의 인식시기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더 알아보기 ③ →](#)

[더 알아보기 ④ →](#)

## '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 ■ 재무제표 감사의견

- 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
-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

### ■ 내부회계 감사의견

- 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
-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임

### ■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용
-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의무화

[더 알아보기 →](#)

## Tax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소기업벤처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5.19.~6.30.)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
-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확대
- 전체 804만 中企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 가능

[더 알아보기 ① →](#)

[더 알아보기 ② →](#)

## Insight

---

# 공인회계사가 본 2025년 2,3분기 경기실사지수 (CPA BSI)

회계정책연구원은 공인회계사 대상 설문을 기반으로 한 2025년 2분기 CPA 경기실사지수(CPA BSI)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분기 BSI(현황): 67 (전기 대비 하락, 경기악화 시사)
- 3분기 BSI(전망): 88 (다소 회복 기대, 여전히 부정적)
- 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 글로벌 통상정책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반도체 산업 둔화 등
- 산업별 현황 BSI
  - 조선업(150)만 기준선(100) 상회, 대부분 산업 부진 지속
- 향후 경제에 영향을 줄 변수
  - 글로벌 경기 흐름, 정부의 정책 변화,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 조달 환경 변화,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 등

[더 알아보기 →](#)

#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년 한국경제 성장률 0.8% 전망 경제 전망

KDI는 최근 발표에서 2025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하향 조정하며,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고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주요 전망 수치
  - 실질 GDP 성장률: 0.8% (2024년 2.0% → 하향 조정)
  - 민간소비 증가율: 1.1% (↓), 설비투자: 1.7% (→), 건설투자: -4.2% (↓)
  - 수출 증가율: 0.3% (2024년 7.0% → 크게 둔화)
  -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
  - 취업자 수 증가: 약 9만명, 실업률: 3.0%
- 주요 리스크 요인
  - 미국 관세정책 및 여타 국가들의 대응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 지연 가능성

\*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더 알아보기 →](#)

## Contact us

###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대치동, 동하빌딩 2층)

Tel 02.569.0181 | Fax 02.569.0367

Email [rfp@kr.gt.com](mailto:rfp@kr.gt.com)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에는 Grant Thornton 대주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5 Grant Thornton Daejoo.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Daejoo is a member firm of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